



이항로 진안군수는 10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담화를 갖고 5대 핵심 분야, 63개 공약사업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진안 민선7기 공약 첫걸음

3025억원 규모 최종 확정 5대 핵심분야 63개 사업 사회적가치 반영 열린 공약

진안군은 민선7기 공약과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하고 '군민과 함께 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항로 군수는 10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담화를 갖고 5대 핵심 분야, 63개 공약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민선7기 공약사업 확정을 위해 군 현황과 민선7기 공약 자체평가 결과는 물론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했다. 공약 실천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3,025억원 규모로 국비 937억원, 도비 141억원, 군비 1,503억원, 기타 444억원 등이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7기 비전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으로

정한 군은 공약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순수 주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단장 배병욱)을 구성·운영한다. 공약 관리 규칙도 제정해 체계적인 공약 관리를 통해 공약 효과를 극대화 방침이다. 분야별 공약을 살펴보면 진안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농업지원을 체계화하고 진안고원 축산브랜드 육성과 산촌소득 창출기반 구축,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청년수당지급, 청년몰 조성 등 청년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튼튼성장상해질병보장보험 지원, 초등 돌봄 확대, 우수인재 육성, 미세먼지 저감,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급,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천원 이비용 지원, 보존정책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대처해 나가면서 문화예술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숙박단지를 유치

하고 케이블카 설치, 워터파크 조성, 진안고원 드라이브코스 개발, 진안홍삼축제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진입, 마이산을 중심으로 용담호 관광개발을 통해 진안을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 모든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배심원단은 군민을 위한 참된 공약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매월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연 2회 전체 회의를 통해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군정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하게 된다. 이항로 군수는 "민선7기 공약은 지역발전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대처하고 진안군 미래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열린 공약이다"며 "공약의 핵심가치인 군민과의 소통, 군민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배심원단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참여 창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가을배추값 폭락해도 최저가격 보장”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을배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대상은 직접 가을배추를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범위는 1천~1만㎡로 지원을 회



통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가 소재해 있는 읍면사무소(산업담당) 또는 조공법인,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훈 과공무

통 담당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위축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며 “해당 농가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관내에서 건 고추를 생산하는 225농가(530,959㎡, 121,687kg)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11월 기준 가격이 정해지면 차액의 90%까지를 지원해줄 예정이다. 건 고추와 가을배추는 2018년도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대상 품목(가격 등락폭이 큰 농작물 선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백운면 호국 성지 새 단장

호국충혼탑 이전 신축 올 8월 말 준공 제막식

진안군 백운면 호국충혼탑 제막식이 10일 추모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항로 군수를 비롯해 신갑수 군의장과 의원, 이항기 도의원, 최규운 진안경찰서장, 남기재 전 진안경찰서장 등 기관단체장과 이전신축 추진위원, 주민, 참전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운면 충혼탑은 당초 운교리 산 105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운교리 514-21 부지로 이전 신축됐다. 구 호국충혼탑은 1982년 건립돼 노후화되고, 참배공간이 협소해 호국영령을 기리는데 어려움이 많

아 그간 백운면민들의 충혼탑 신축은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진안군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4월 이전신축을 결정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시작해 올해 8월 말 준공하게 됐다. 새로 신축된 호국충혼탑은 높이 11m, 너비 11m의 탑형상이며, 탑 뒤에는 상황관이 설치돼 호국영령 88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항로 군수는 “백운면은 6.25당시 적군과의 전투가 치열했던 지역으로 군경과 주민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이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제대로 기릴 수 있는 호국충혼탑을 새로 건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장수군은 장안산과 팔공산을 비롯한 등산로 8개 구간에 등산객의 안전을 지켜줄 국가지점번호판 140개를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경찰·소방 등 기관별로 사용하던 위치표시 체계를 국가가 통일한 제도로, 우리나라 국토와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지점마다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를 조합한 좌표 방식이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지역의 위치를 표시하면서 재난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지점번호를 통한 정확한 위치파악이 용이해져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119 구조와 구급이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장수군을 찾는 등산객들이 안전한 산행으로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면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지점번호나 도로명주소를 찾아 119 또는 112에 신고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물폭탄에 상수도 긴급대책반 가동

진안군 맑은물사업소 14건 피해 복구 완료

진안군은 지난 8월말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 불연 최소화를 위해 상수도 긴급대책반을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하며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했다. 군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26일과 27일 이틀 동안에는 최대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됐다.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 시설물 보수와 관로 복구 등 14건의 상수도 피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복구가

모두 완료됐다. 특히 부귀면 황금리 진삼마을은 토사가 유실돼 마을상수도 관로가 노출되고 추가 붕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으나 진안군의 발 빠른 현장조치로 마을 상수도를 막을 수 있었다. 맑은물사업소 정흥기 소장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할 상수도 복구 작업에 힘쓰는 것은 물론 상수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인구감소 극복 위한 예방 활동 적극

장수군은 저출산·고령화 및 지속적 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10일 장수군에 따르면 인구감소 문제에 군민이 공감하고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교육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장수군 7개 읍·면의 이장단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과 대응,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및 신규시책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장수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향부속강형기 대표를 초청해 인구감소 시

에 장수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장수군이 풍요로운 미래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 등 인구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며 “장수군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더불어 전 주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오는 12월 인구조획정책 연구원의 인구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점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